목포 북항 노을공원서 드론 나이트쇼

시, 전남도 공모사업 선정 9~10월 개최… 평화광장 해상W쇼와 시너지 기대

석양노을이 일품인 목포 노을공원서 화려한 드론 나이트쇼가 펼쳐진다.

목포시는 시가 전남도 드론 나이트쇼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2022~2023 전남도 방문의 해'와 연계해 도내 야간경관과 드론을 활용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공모사업을 실시했다.

도는 공모사업 대상지 1개 시·군을 선정하기 위해 관광·축제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추진의지, 기대효과, 지속가능 방안 등에 대한 제안발표 평가를 거쳐 목포시를 선정했다.

시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북항 노을공원에서 드론 나이트쇼 행사(가칭 목포 노을 :D쇼)를 개최할 계획이다.

서해 노을을 배경으로 석양을 좋아하는 어린왕자를 스토리텔링한 드론쇼와 미디어파사드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목포 노을 :D쇼'는 ▲Drone 전남, 목포의 관광 및 미래산업 ▲Dance 서남권의 흥과 멋을 드론쇼로 표현 ▲:D 아침부터 밤까지 즐거운 목포관광을 미소로 형상화 ▲Delicious 맛의 도시 목포와 전남의 맛 등을 의미한다.

드론 나이트쇼가 열릴 북항 노을공원 전경.

시는 드론 나이트쇼가 북항 노을, 유달산, 목포해상케이블카, 목포대교, 9미(味)를 즐길 수 있는 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 등 북항권 관광과 상권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관광거점도시사업과 연계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단발적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야간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해상W쇼라는 전남도의 대표 야간관광콘텐츠를 가진 목포가 드론 나이트쇼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야간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위치적으로도 평화광장의 신도심과 노을공원의 원도심에서 각각 개최되는 야간공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영광군, 어업용 면세유 인상액 50% 지원

예비비 2억5000만원 긴급 투입

영광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치솟은 국제유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면세유 인상액'을 지원한다.

영광군은 유가 폭등에 따른 어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예비비 2억5000만원을 긴급 투입해 어업용 면세유 인상액의 5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용 면세 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선, 양식장 관리선, 양식·종자생산 등에 종사하는 500여 어가이다.

지원 폭은 3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사용한 면세유 인상액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유종은 어업인이 배정받은 어업용 경유·휘발유이며, 리터(ℓ)당 경유는 98원, 휘발유는 89원을 정액 지원한다.

신청은 1~2차 시기로 나눠 영광군 해양수산과와 영광군 수협에서 접수 받는다.

1차 신청은 13일 마감했으며, 2차는 18일부터 29일까지이다.

면세유를 배정받았더라도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가의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완도군립도서관, 한국도서관상 '단체상'

1읍면 1도서관 조성…독서문화 진흥 공로 인정

완도군립도서관이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22년 제54회 한국도서관상'에서 단체상을 수상했다.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완도군립도서관은 단체부문에서 전남 지역 공공 도서관 중 유일하게 수상했다.

도서관 분야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도서관상은 매년 공공도서관과 대학 도서관, 전문 도서관, 학교 도서관 등 전국 1300여 개의 기관 중 도서관 발전에 크게 기여한 단체와 개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1955년 개관한 완도군립도서관은 지역에서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현재 금일공공도서관을 비롯한 3개 공립 도서관과 민간 주도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10개관) 에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전자책을 포함한 15만여권의 장서를 서비스 중이며 자료 수집 및 제공,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섬 지역 도서관 인프라 확충 등 군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했다.

이번 수상은 2014년 신지햇살작은도서관을 시작으로 2021년 고금고사리작은도서관 조성까지 지속적인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통해 '1읍면 1도서관 조성' 목표를 달성해 섬 주민 독서 갈증 해소와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광민 완도군 문화예술과장은 "문화 부문의 척도인 도서관 분야에서 큰 상을 받아 더욱 의미가 깊다"며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도서관과 책을 통해 치유해 군민 모두가 더욱 행복해줬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남군과 마을도서관 관계자들이 법정스님 마을도서관 개관을 기념해 식수를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 우수영 '법정스님 마을도서관' 개관

생가터에 조성…울돌목 해상케이블카 등 연계 역사여행

해남군은 문내면 우수영 '법정스님 마을도서관'을 정식 개관했다고 밝혔다.

법정스님 마을도서관은 문내면 출신으로 평생 무소유의 행동하는 삶을 실천하다 2010년 입적한 법정스님을 기리기 위해 생가터에 조성됐다.

지난 1월4일부터 임시 개관해 운영해 왔으며, 스님의 유품과 사진 등을 전시한 마을도서관과 포토존, 조망대 등이 설치돼 있다.

별도 개관식 없이 운영을 들어간 법정스님마을도서관은 임의로 시행했던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연장했다.

또 평일에는 관광실(우수영팀) 직원, 주말에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해 법정스님의 사상과 전시품 설명을 도울 예정이다.

군은 개관을 기념해 법정스님마을도서관을 스탬프랠리 코스에 포함시키고, 17일까지 SNS 소문내기를 통한 경품 추첨 이벤트를 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일상에 지친 국민들이 법정스님 생가터에 방문해 법정스님의 말씀과 가르침, 행적을 접하고 삶의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활용되길 바란다"며 "최근 개장한 울돌목 해상케이블카, 스카이 워크와 연계해 역사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신안 지도 갯벌도립공원 탐방로.

세계유산 신안 지도 갯벌도립공원 탐방로 조성

거북섬 연결 507m 등 950m

신안군이 관광객들의 탐방 편의를 위해 '지도 갯벌도립공원 탐방로'를 조성했다.

지도읍 앞에 위치한 갯벌도립공원은 지난 세월 지역주민·어민의 생활 터전으로 선조들의 역사와 자연문화 유산이 가득한 신안의 생태자원이다.

탐방로는 지도읍 본도와 무인도인 거북섬을 연결한 해상 443m와 거북섬 내부 507m 등 총 950m이다.

탐방로와 더불어 신안갯벌의 상징인 농게를 형상화한 대형 농게 조형물 2점이 설치됐다.

사진 촬영 장소인 바다그네, 지친 몸과 마음의 힐링을 위한 거북섬 편의시설, 야간 볼거리 제공을 위한 경관조명(반딧불 조명 등)도 들어섰다.

신안군 관계자는 "지도 갯벌도립공원 탐방로 준공을 통해 신안 북부권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볼거리와 자연생태 힐링공간 제공으로 지역 명소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